

도시인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formance of Living Proprieties on Family Adaptability and Self-Esteem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교 수 이 정 우

강 사 김 연 화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Jeong Woo Lee

Lecturer : Yeon Hwa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performance of living proprieties on family adaptability and self-esteem, centering on the married men and women residing in the city of Seoul. 220 respondents were randomly selected in July 2000 for the present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performance of living proprieties revealed a relatively high level and w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age, family type, religion, the number of children, experience of propriety education, value orientation, and the degree of communication. Second, family adaptability revealed a relatively high level and w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by family type, experience of propriety education, and the degree of communication. Self-esteem w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number of children and degree of communication. Third, background variable (age), the performance of living proprieties (communication manner, family decorum, social etiquette), and family adapt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This implies that the performance of living proprieties rather than socio-demographic variables has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I. 서론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규범서를 통해서나 가정에서 조부모, 부모, 친척 등을 통해 생활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해 왔다.

그러나 지난날 겪었던 급변하는 국내의 상황과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과거의 인본주의적 가치보다는 물질, 능력, 업적 등을 중시하는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부자관계가 주축을 이루던 가족구조에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변용되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간의 연대의식과 결합력의 약화, 부부간 대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즉 가정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애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사적영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부관계형성이 요구되며 가족원들 간에 감정적 유대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족간의 따뜻한 배려와 예절이 그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예절은 궁극적으로 너그러운 마음, 일을 사려 깊게 처리, 배려 등을 실천하고 전통과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다. 동시에 예절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 믿음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해주면서 유연성을 갖게 하는 상식적인 행동지침이다(Post, 1997). 그러므로 부부각자의 자기관리와 조화로운 가족간의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예절의식을 가다듬고 예절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며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친밀한 유대관계를 향상시킬 수 없듯이, 부부사이에도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로 불만족스럽게 되고 부부간 부적응을 초래하여 자아에 대한 평가를 낮추게 될 수도 있다. 그럼으로 부부간의 품위와 예절을 지키면서 상호관계를 맺을 때 가족 내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과 원만한 가족·대인관계, 가족문화의 계승 및 가치창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이 시대·사회·가정에 적합한 예의범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예절수행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예절수행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1980년대 이후 유아, 초등생,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황인명, 1980;곽정순, 1995;정정순, 1995;김정신·노은호, 1996;강선영·이정우, 2001)가 많은 경향이며, 1990년대 중반이후 대학생(이정우·김연화, 1996, 1998;정지영·주영애·안현숙, 1996;정지영·임혜경, 1997;김희경, 1999)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정우·김경아, 1997, 1999),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길표, 1994;이정우·김명나, 1999)가 있으나 대부분이 어머니,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몇 편 있을 뿐이다. 더욱이 도시 기혼 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이 가족 내 적응력 및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접근·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며 도시 기혼 남녀 자신의 가정생활 및 자기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연구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예절 수행

예(禮)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의 근본을 이루며 일상생활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습득하고 전수하고 있는 생활문화로써(이정우·김연화, 1996) 이해할 수 있다. 즉 '예'는 인격형성의 요건이면서 인간의 공동체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절은 원래 예의범절(禮儀凡節)의 준말로써 오늘날, 예법, 매너, 에티켓이라고도 하며,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社會契約的)인 생활규범이다(김득중, 1998). Boykin은 에티켓을 친절, 공손, 공명정대한 정신, 타인의 의견에 관대함, 자제심, 성실한 마음과 적당한 유머, 자존심, 상식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김영만 편역, 1989)고 하였다. Post(1997)는 예

티켓은 사려 깊은 행동지침 즉, 상식적이며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실천하고 전통과 의식을 준수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 전통 그리고 믿음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유연성을 갖게 하는 행동지침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정우 외(2001)는 예절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자기 내면을 가다듬고 타인을 존경함은 물론, 마음으로부터 섬기며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성품과 교양을 바탕으로 한 품위 있는 몸가짐, 바르고 고운 말씨, 세련된 행동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남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절의 본질이란 원활한 공동 생활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며 그 바탕에는 마음으로부터어나오는 내재된 실제와 이를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격식의 조화라 할 수 있다(이정우·김연화, 2000).

한편, 생활예절 수행이란 실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생활예절 수행이란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대화예절, 인사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가정의례에 대한 도시 기혼남녀 개인의 실제 예절수행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한정하기로 한다.

생활예절 수행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부 또는 주부와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도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생활예절 의식과 수행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가정생활, 식생활, 사교, 제사, 인사, 대화예절의 순으로 생활예절이 잘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정우·김명나(1999)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자녀의 예절수행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자녀에 비해 예절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예절수행에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의 영향은 없었으며 집합주의 성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도 등 심리적 변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윤환(1993)의 연구에서는 수신·효도·검약과 가족사랑 및 책임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면 생활예절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혼 남녀의 생활예절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미래에 성인이 될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중요하다.

2. 가족적응력

적응(adaptation)은 생활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환경과 만족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홍정기, 1995), Piaget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유안진·김혜선, 1996: 45)

한편 가족적응력(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파악한 Olson(1983)의 순환모델에서 사용된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중의 하나로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반응하여 권력과 역할구조, 관계성과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Olson, Russell & Sprenkel, 1983) 즉, 가족체계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통제의 유형, 부모의 자녀 훈육 방식, 가족원들간의 협상능력, 역할확립 및 역할 분담, 가족규칙의 명시성 및 융통성이 측정기준이다(Olson et al., 1979; 1982, 최연실, 1993). 변화정도가 높은 수준부터 혼돈(chaotic), 융통적(flexible), 구조적(structured), 경직(rigid)의 네 차원으로 구분된다.

적응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면, Angell(1936)은 실업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가족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Tallman(1972)은 적응력을 개인자원으로 보았으며, 역할이나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Kantor와 Lehr(1976)는 가족적응력이란 가족이 확립된 유형이나 규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즉 가족적응력의 개념은 내적·외적 요구나 목표에 맞추어 역할, 규칙, 전략을 바꾸려는 가족의 능력이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전귀연·최보가, 1995).

또한 Olson 등(1979, 1985, 1989)의 연구에서 가족적응력은 가정의 기능과 곡선적 또는 선형적으로 나

타나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곡선적인 결과는 임상가족을 포함한 연구(Anderson, 1986; 유순덕, 1987; 도수경, 1990; 정민자, 1992)에서 입증되었으며, Olson (1989) 등의 정상가족 대상 연구에서는 적응력이 가족기능과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국의 여러 선행연구(고승자, 1985; 홍성배·한경미, 1990; 박경숙, 1993; 김수연·김득성, 1993; 전귀연, 1993; 최규련, 1994; 전귀연·최보가, 1995)에서는 선형적 관계가 있음이 지지되었다.

한편, 가족적응력에 관한 연구는 부부 또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가족적응력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선형성을 가정하고, 가족적응력은 생활예절수행, 자아존중감간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이전 성취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반영된 자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Hoelter, 1984; Rosenberg, 1965; 백지숙, 2000). 심리학 사전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기자신을 중요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Harre, et al, 1984; 이강운, 1986에서 재인용)"라고 개념 짓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사랑(Self-love), 자기존경(self-respect),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가치(self-worth) 등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Rosenberg, 1965), 즉 한 개인이 자기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도 관련된 것이다(Rosenberg, 1979). 부연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김희화·김경연, 1999: 3)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Mead (1970)는 인간이 사회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은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Sullivan은 가족관계에서 얻는 대인관계의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 특히 부

모의 역할이 결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의 근거를 제공한다(이신숙·조옥희, 1997)고 하였다.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예절영역 중 가정생활예절과 대화예절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atson 과 Drotinsky(1988)의 연구에서는 흑인 청소년의 적응력과 자아정체감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과 가족적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료되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자아존중감·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생활예절수행·자아존중감·가족적응력과 관련지어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연구대상을 달리한 관련연구들을 포함시켜 생활예절 수행·자아존중감·가족적응력 등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별

기혼남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예절수행 정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임해경·정지영(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성별에 따른 예절수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족적응력의 경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명자, 1992; 김수연·김득성; 최규련, 1994; 안양희, 1988)에서는 부부간 적응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lson 등(1983)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수미(1995)의 연구에서도 부인이 남편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연구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송대현·박한기(1992), 김은주(1994)의 한국 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의 자존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연령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정도는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정우·김경아, 1997), 영역별로는 일상생활·가정생활·대화예절 등에서의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가족적응력은 박경숙·김명자(1991)의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들의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정도는 기혼여성들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예절 수행정도가 높았으나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는 일부 하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김정신·노은호(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자녀의 생활예절 수행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적응력을 살펴보면 김수연·김득성(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Ward(1978)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4) 가족형태

가족형태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정도의 경우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곽정순(1996)의 연구에서 물건 다루기의 영역은 핵가족일 때 손님마중과 배웅예절은 확대가족일 때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적응력은 안선영

(1994), 이정우·이미선(1995)의 연구에서 핵가족인 경우 적응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한 자아존중감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종교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제사예절 수행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적 특성에 따른 제사절차에서 기인한 듯 하다고 하였다.

한편 종교에 따른 가족적응력은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에 가족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종교가 일치할 경우 가족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자아존중감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6) 예절교육여부

대학생들의 예절교육 전후의 태도나 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이정우·김연화(1996; 1998)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예절교육 수강 전 보다 수강 후 모든 영역에서 예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절교육 후 자신의 예절에 대한 태도나 예절수행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김경아(1997)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예절교육여부가 생활예절 수행에 매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절교육여부와 가족적응력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바 없으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료되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7) 물질지향성

생활예절 수행과 물질지향성은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제례수행을 연구한 이정우·김연화(1999)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 제례의식을 매개로 하여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물질주의 성향이 높으면서 제례의식이 전통적인 경우 제례수행도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지향성에 따른 가족적응력, 자아존중감 연구

는 찾아 볼 수 없었다.

8) 의사소통도

의사소통도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생활예절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정우·김명나(1999)의 어머니와 초등학교 자녀의 연구에서도 가족간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예절수행은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선영·이정우(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생활예절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간의 의사소통도 변인이 예절 수행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사소통도에 따른 가족적응력은 선행연구(계선자·한정화, 1997; 박은주, 1994)에서 모두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의사소통이 가족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가족적응력·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도시 기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가족적응력·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3. 도시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에 따른 가족적응력·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4. 도시기혼남녀의 배경변인·생활예절 수행·가족적응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수정·보완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성별, 연

령, 교육수준, 가족형태, 종교, 자녀수, 예절교육여부, 물질지향성, 의사소통도), 생활예절 수행, 가족적응력 및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예절 수행에 관한 척도는 선행연구(김정신·노은호, 1996; 정지영 외, 1996; 이정우·김경아, 1997; 이정우·김명나, 1999; 문화시민운동협의회, 1998; 조선일보사, 1999, 2000)를 근거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이정우·김연화·김명나·김경아·장기정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생활예절 수행영역은 대화예절, 인사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가정의례 등의 6개 영역, 총 7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생활예절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질지향성은 선행연구(이명숙, 1995; 이정우·이정숙·박미금, 1998; 이정우·김연화, 1999)를 근거로 하여 물질지향성의 가치영역에서 3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도는 선행연구(이정우·안동선, 1984, 장병욱, 1997)를 기초로 하여 가족간의 대화빈도 및 일치도·시간·양·만족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가족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er, 그리고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척도인 FACE III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III: FACES III)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선행연구(임수미, 1995; 최연실, 1996; 김수연, 1998)의 설문 중 가족적응력을 측정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2)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표 1>과 같이 Cronbach's α 에 의하여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다.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변 인		Cronbach'α	변 인		Cronbach'α
생활 예절 수행	대화예절	.65	심리적 변인	물질주의성향	.69
	인사예절	.59		의사소통도	.88
	가정예절	.79	가족적응력		.63
	사교예절	.81	자아존중감		.66
	식사예절	.82			
	가정의례	.82			
	전 체	.94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도시 기혼남녀의 생활예절수행·가족적응력·자아존중감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400명의 학생부모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조사는 2000년 6월 30일 ~ 7월 25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미수거 및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20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Cronbach'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t 검증,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 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사회인구학적 변인)

(N=220)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별	남	82	37.3	가족 형태	핵가족	193	88.1
	여	138	62.7		확대가족	26	11.9
	계	220	100.0		계	219	100.0
연령	35세 미만	27	12.3	종교	기독교	69	31.5
	35세~39세	39	17.7		불 교	37	16.9
	40세~44세	89	40.5		천주교	40	18.3
	45세~49세	42	19.1		무교 /기타	73	33.3
	50세 이상	23	10.5	계	219	100.0	
	계	220	100.0	자녀수	한 명	29	13.2
			두 명		155	70.5	
			세 명 이상		36	16.4	
학력	고졸이하	108	50.0	예절교육여부	받았다	25	11.4
	전문대졸이상	108	50.0		받지 않았다	194	88.6
	계	216	100.0		계	219	100.0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심리적 변인)

변 인		구 분	빈도(%)	평 균	표준편차
심리적 변인	물질지향성	상	65(29.8)	2.72	.78
		중	86(39.4)		
		하	67(30.7)		
	의사소통도	상	74(33.8)	3.65	.61
		중	94(42.9)		
		하	51(23.3)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2. 도시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 · 가족적응력 ·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도시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도시기혼남녀의 생활예절수행은 전체적으로 평균 3.85(5점 만점)로 중간점을 상회하여 비교적 생활예절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수행이 3.90으로 나타난 이정우 · 김경아(1997)의 연구와 어머니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4.16으로 나타난 이정우 · 김명나(1999)의 연구에서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남녀를 함께 연구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는 식사예절, 가정의례, 사교예절, 가정예절, 대화예절 · 인사예절의 순으로 생활예절 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언어예절수행이 낮게 나타난 장경선(1993), 기혼여성의 대화예절이 낮게 나타난 이정우 · 김경아(1997) 연구 및 실업계 여고생의 예절 수행 중 언어예절이 낮고 지적한 강선영 · 이정우(2001)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인사예절의 경우에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선영 · 이정우(2001)의 연구에서는 인사예절 수행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결과 인사예절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기혼여성 대상연구(이정우 · 김경아, 1997)에서 인사예절이 대화예절과 함께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도시의 기혼남녀는 식사예절이나 가정의례, 사교예절에서는 수행을 잘하는 편이지만 대화예절, 인사예절의 실천이 생

활예절수행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녀의 인사나 대화예절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 변인별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생활 예절 수행	대화예절	3.78	.47
	인사예절	3.60	.60
	가정예절	3.82	.58
	사교예절	3.87	.50
	식사예절	4.03	.49
	가정의례	3.91	.57
	전 체	3.85	.39
가족적응력		3.68	.59
자아존중감		3.50	.57

도시 기혼남녀의 가족적응력 및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도시 기혼남녀의 가족적응력은 평균 3.68(5점 만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50(5점 만점)으로 나타나 두 변인 모두에서 중간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경변인에 따른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 · 가족적응력 · 자아존중감

1) 배경변인에 따른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
〈표 5〉에서 보듯이 배경변인에 따른 도시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을 분석한 결과 기혼남녀의 성별(p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의 질수행

(N=220)

배경변인	N	대화예절		인사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가정의례		전체				
		M	F(t)	D	M	F(t)	D	M	F(t)	D	M	F(t)	D	M	F(t)	D		
성별	남	82	3.77		3.65	-.96		3.76	-1.06		3.93	-2.22*		3.90	-2.27		3.82	-.82
	여	138	3.79		3.57		3.85		3.92		4.08			3.92			3.87	
연령	21세~34세	27	3.90		3.48		3.69		3.68		3.95		C	3.79			3.77	
	35세~39세	39	3.68		3.42		3.84		3.73		3.95		BC	3.86			3.75	
	40세~44세	89	3.79	2.02	3.65	2.78*	3.85	.67	3.95	3.42*	4.08	.69	AB	4.01	1.75		3.91	2.61*
	45세~49세	42	3.69		3.59		3.77		3.86		4.02		ABC	3.79			3.77	
	50세~67세	23	3.95		3.91		3.92		4.07		4.03		A	4.03			4.01	
학력	고졸이하	108	3.73	-1.65	3.53	-1.65	3.79	-.54	3.85	-60	4.00	-.91		3.94	.63		3.81	-1.14
	전문대졸이상	108	3.84		3.67		3.83		3.89		4.06			3.88			3.88	
가족형태	핵가족	193	3.78	-20	3.59	-.64	3.81	-.44	3.86	-.93	4.03	.17		3.88	-2.16*		3.84	-.70
	확대가족	26	3.80		3.67		3.86		3.96		4.01			4.14			3.90	
종교	기독교	69	3.79		3.70		3.85		3.94		4.08			3.75			3.86	
	불교	37	3.81		3.66		3.84		3.79	.80	4.03	.53		4.07	2.88*		3.85	.02
	천주교	40	3.77	.09	3.49	1.65	3.86	.36	3.87		3.96			3.96			3.86	
	무교/기타	73	3.77		3.52		3.76		3.85		4.01			3.96			3.84	
	한명	29	3.79		3.58		3.73		3.69		3.88		B	3.75			3.74	
자녀수	두명	155	3.79	.01	3.59	.44	3.86	1.35	3.88	3.08*	4.06	1.64	AB	3.95	1.45		3.86	1.12
	세명이상	36	3.77		3.69		3.71		4.00		4.02		A	3.92			3.88	
예절교육여부	받았다	25	3.92	1.46	4.00	3.51**	3.93	1.06	4.02	1.62	4.17	1.49		4.14	2.07*		3.98	1.66
	받지 않았다	194	3.77		3.55		3.80		3.85		4.01			3.88			3.83	
심리적변인	상	65	3.85		3.61		3.78		3.88		4.00		AB	3.84			3.86	
	중	86	3.72	1.47	3.61	.11	3.77	.93	3.81	1.14	3.95	3.13*	B	3.89	1.69		3.80	1.15
	하	67	3.79		3.57		3.89		3.93		4.15		A	4.02			3.91	
의사소통도	상	74	3.98		3.77		4.20		4.09		4.16		A	4.22			4.09	
	중	94	3.77	15.35***	3.58	5.45**	3.81	60.36***	3.84	15.89***	4.05	7.89**	B	3.83	21.56***		3.83	31.37***
	하	51	3.53		3.42		3.26		3.61		3.81		C	3.61			3.56	

** p<.05 *** p<.001

* D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05), 연령($p < .05$), 가족형태($p < .05$), 종교($p < .05$), 자녀수($p < .05$), 예절교육여부($p < .05$), 가치지향성($p < .05$), 의사소통도($p < .05$)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은 식사예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혼남성보다는 기혼여성이 식사예절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은 전체 생활예절수행($p < .05$), 인사예절($p < .05$), 사교예절($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50세 이상인 집단이 39세 이하인 집단보다 생활예절 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50대 이상 어른들이 생활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젊은 세대에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집단에서도 생활예절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가족형태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은 가정의례($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핵가족에서보다는 확대가족인 경우에 가정의례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의 경우보다는 확대가족의 경우 가정의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어른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기회가 많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종교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은 가정의례($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불교도 집단이 기독교인 집단 보다 가정의례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례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박수정, 1989; 김명나, 1989; 손유미, 1990; 이정우·김연화, 1999)에서 불교나 천주교 가정인 경우에 전통적인 제례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제사변인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사교예절($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수가 한 명인 집단보다는 세 명 이상인 집단이 사교생활예절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교육여부에 따라서는 인사예절($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사예절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절교육여부가 인사예

절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질문 응답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직장에서 친절교육 차원의 인사예절 교육이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물질지향성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은 물질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에서 식사예절수행($P < .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도는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생활예절 수행($p < .001$)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의사소통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예절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이정우·김경아(1997; 1999)의 연구 및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명나(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생활예절 수행도를 높이려면 사회인구학적 변인도 중요하지만 생활예절교육 경험여부나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정 내에 생활문화인 예절이 효과적으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기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지속적인 예절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 따라서 가족간의 의사소통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기혼남녀의 가족적응력·자아존중감

<표 6>에서 보듯이 배경변인에 따른 도시 기혼남녀의 가족적응력을 분석한 결과 가족형태($P < .05$), 예절교육여부($P < .05$), 의사소통도($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이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인 경우 가족적응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안선영(1994), 이정우·이미선(199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교육여부에 따라서는 예절교육여부와 가족적응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받지 않은 집단보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적응력

배경변인		N	가족적응력			배경변인		N	가족적응력		
			M	F(t)	D				M	F(t)	D
성별	남	82	3.65	-.60		종교	기독교	69	3.64	.30	
	여	138	3.70				불교	37	3.70		
							천주교	40	3.65		
							무교/기타	73	3.73		
연령	35세미만	27	3.75	.24		자녀수	한명	29	3.55	1.71	2.53*
	35세~39세	39	3.72				두명	155	3.68		
	40세~44세	89	3.65				세명이상	36	3.82		
	50세이상	23	3.72			예절교육 여부	받았다	25	3.96		
							받지않았다	194	3.65		
학력	고졸이하	108	3.72	.82		물질 지향성	상	65	3.73	.40	
	전문대졸이상	108	3.65				중	86	3.64		
							하	67	3.68		
가족 형태	핵가족	193	3.65	-2.24*		의사 소통도	상	74	3.98	19.36***	C
	확대가족	26	3.92				중	94	3.62		B
							하	51	3.37		A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배경변인		N	자아존중감			배경변인		N	자아존중감		
			M	F(t)	D				M	F(t)	D
성별	남	82	3.55	.97		종교	기독교	69	3.51	.59	
	여	138	3.47				불교	37	3.60		
							천주교	40	3.43		
							무교/기타	73	3.49		
연령	35세 미만	27	3.72	1.94		자녀수	한명	29	3.72	4.99**	B
	35세~39세	39	3.34				두명	155	3.42	1.80	A
	40세~44세	89	3.53				세명이상	36	3.64		AB
	50세 이상	23	3.52			예절교육 여부	받았다	25	3.69		
							받지않았다	194	3.47		
학력	고졸이하	108	3.45	-1.17		물질 지향성	상	65	3.52	.11	
	전문대졸이상	108	3.55				중	86	3.47		
							하	67	3.50		
가족 형태	핵가족	193	3.51	.24		의사 소통도	상	74	3.65	7.11**	B
	확대가족	26	3.48				중	94	3.50		B
							하	51	3.27		A

다 가족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예절교육이 가족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도에 따른 가족적응력은 의사소통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간의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계선자·한정화, 1997; 박은주, 1994)에서 모두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족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표 7>에서 보듯이 배경변인에 따른 도시기혼남녀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기혼남녀의 자녀수($P<.01$), 의사소통도($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한 명인 집단이 두 명인 집단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도에 따라서는 의사소통도가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소통도는 기혼남녀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즉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4. 생활예절 수행에 따른 가족적응과 자아존중감

<표 8>에서 보듯이 도시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정도에 따른 가족적응력을 분석한 결과 기혼 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정도는 인사예절을 제외한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하위영역별로는 대화예절($P<.05$), 가정예절($P<.001$), 사교예절($P<.001$), 식사예절($P<.05$), 가정의례($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화예절을 잘 수행하는 상(上)집단이 중간이하 집단보다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 예절 수행은 상(上)집단, 중(中)집단, 하(下)집단 순으로 가족적응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사예절은 수행정도가 하(下)인 집단보다는 중(中)과 상(上)인 집단이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례는 가정의례수행도가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정의례 수행을 잘 하는 상(上) 집단, 중(中)집단, 하(下)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정의례는 오늘날 상업화 된 기관에서 치루더라도 가족을 중심으로 제반 절차를 수행하게 되므로 가정의

<표 8> 생활예절 수행에 따른 가족적응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족적응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족적응력		
	구분	N		M	F	D		구분	N		M	F	D
대화예절	상	56	3.87	4.55*		B	식사예절	상	82	3.77	3.84*		B
	중	100	3.63					중	69	3.71			
	하	54	3.55					하	57	3.50			
인사예절	상	66	3.79	2.00			가정의례	상	61	3.91	8.65***		C
	중	102	3.66					중	83	3.70			
	하	47	3.57					하	64	3.48			
가정예절	상	59	3.97	20.16***		C	전체	상	56	3.93	12.48***		C
	중	97	3.71					중	74	3.70			
	하	58	3.35					하	56	3.41			
사교예절	상	59	3.90	13.35***		B		상	56	3.93	12.48***		C
	중	90	3.76					중	74	3.70			
	하	65	3.40					하	56	3.41			

례를 잘 수행하는 가정은 가족간의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도시 기혼남녀의 가족적응력은 생활예절 수행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예절 수행은 가족적응력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표 9>과 같이 나타났다. 기혼 남녀의 생활예절 수행 전체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예절 수행을 잘하는 상(上)집단이 하(下)집단에서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 예절을 잘 수행하는 기혼남녀는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식사예절과 가정의례를 제외한 대화예절(P<.001), 인사예절(P<.001), 가정예절(P<.001), 사교예절(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인사예절은 하(下) 집단 보다는 중(中)과 상(上)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대화예절·가정예절·사교예절은 모두 수행을 잘 하는 상(上)집단, 중(中)집단, 하(下)집단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도시 기혼남녀의 생활예절 수행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생활예절 수행정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인사예절을 잘 수행하고, 대화예절, 가정생활예절, 대인간의 사교예절을 잘 수행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 배경변인과 생활예절 수행·가족적응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배경변인과 생활예절 수행·가족적응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대화예절($\beta = .26$), 가정예절($\beta = .22$), 사교예절($\beta = .20$), 연령($\beta = -.16$)의 순으로 즉, 대화예절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예절수행도가 높을수록, 사교생활예절을 잘 수행할수록, 그리고 기혼남녀의 연령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4%이며, 제일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대화예절로 나타나 언어규범이나 호칭, 말하고 듣는 등의 대화예절을 잘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기혼남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9> 생활예절 수행에 따른 자아존중감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구 분	N	M	F	D		구 분	N	M	F	D
대화예절	상	56	3.74	12.27***	C	식사예절	상	81	3.55	1.67	
	중	99	3.51		B		중	70	3.52		
	하	55	3.23		A		하	57	3.38		
인사예절	상	68	3.70	12.39***	B	가정의례	상	61	3.63	2.11	
	중	100	3.52		B		중	84	3.50		
	하	47	3.19		A		하	63	3.42		
가정예절	상	60	3.73	14.70***	C	전체	상	56	3.74	10.78***	C
	중	97	3.53		B		중	73	3.52		B
	하	57	3.19		A		하	56	3.27		A
사교예절	상	58	3.71	8.75***	C						
	중	90	3.51		B						
	하	65	3.30		A						

이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이정우·김경아, 1997; 이정우·김명나, 1999)의 기혼여성 대상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예절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과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생활예절수행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대화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수행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상대적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생활예절을 잘 수행하는 것은 자기자신을 잘 관리함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자아존중감도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이 입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혼남녀의 생활예절수행은 중간점을 상회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식사예절 수행이 가장 높았고 사교예절, 가정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성별, 연령, 가족형태, 종교, 자녀수, 예절교육여부, 물질지향성, 의사소통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식

〈표 10〉 배경변인과 생활예절 수행, 가족적응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b	β	
배경변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 별	-.08	-.07	
		연 령	-.01	-.16*	
		교육수준	.03	.13	
		가족형태	-.17	-.10	
		종교(기독교)	-.05	-.04	
		(불 교)	.08	.05	
		(천주교)	-.10	-.07	
		자녀수	.06	.09	
		예절교육여부	.16	.09	
	심리적 변인	물질지향성	.02	.03	
		의사소통도	-.04	-.04	
		예절수행		.31	.26**
		대화예절		.13	.14
		가정예절		.21	.22*
		사교예절		.22	.20*
		식사예절		-.16	-.14
		가정의례		-.10	-.11
가족적응력			.08	.09	
상수				1.25	
F값				4.42***	
R ²				.34	

※ * p<.05 ** p<.01 *** p<.001

※ 가변인: 성별 - 기준: 남성, 비교: 여성

가족형태 - 기준: 핵가족, 비교: 확대가족

종교 - 기준: 없음, 비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예절교육여부 - 기준: 무, 비교: 유

사예절을 잘 지키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기혼남녀가 35세 미만인 기혼남녀보다 인사예절, 사교예절, 그리고 생활예절 전체에서 수행수준이 높았다.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이 가정의례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인 기혼남녀가 가정의례를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수가 세 명 이상인 기혼남녀가 사교예절 수행수준이 높았다. 한편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예절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주의 성향이 낮은 즉,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성향을 지닌 인본주의적인 기혼남녀가 식사시 예절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기혼남녀가 예절전반에 걸쳐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장자에 비해 젊은 기혼남녀들의 생활예절수행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아동기자녀를 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사예절과 대화예절의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사예절 수행도가 높은 점, 그리고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한 집단이 생활예절 수행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기부터 초·중·고교 가정학 영역에서의 교육을 비롯하여 복지관, 문화센터, 직장에서 가정생활교육 및 예절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 남녀의 가족적응력과 자아존중감은 중간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족적응력은 가족형태, 예절교육여부, 의사소통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확대가족인 경우,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집단의 기혼남녀는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절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의사소통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녀수, 의사소통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두 자녀 이상보다 한 자녀의 경우, 가족간에 의사소통도가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이들 변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생활예절 수행(인사예절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 따라 가족적응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화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가정의

례 수행수준이 높은 기혼남녀는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간에는 우선 예절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가족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배경변인과 생활예절수행, 가족적응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대화예절($\beta = .26$), 가정예절($\beta = .22$), 사교예절($\beta = .20$), 연령($\beta = -.16$)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생활예절수행이 자아존중감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예스런 마음가짐, 언어, 몸가짐으로 가족원에 대한 배려, 친절, 그리고 가정의례를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도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연구로서 기혼 남녀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비교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기혼 남녀간의 차이나, 부부를 쌍으로 한 연구,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도 기대된다.

둘째, 생활예절교육여부가 생활예절수행이나 가족적응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현대 생활에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절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생활예절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길 바라며, 가족적응력이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선영·이정우(2001). 실업계 여고생의 예절의식·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89-104.
- 2) 계선자·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59-77.
- 3) 고보선(1999).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가계재정복지.

- 대한가정학회지 37(3), 63-84.
- 4) 고정자 · 김갑숙(1996).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5) _____(2000). 가족적응성 ·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4.
 - 6) 광정순(1995). 청소년의 생활예절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7) 김득중(1998).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 8)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대 논문집* 33, 31-55.
 - 9) 김수연 · 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10) _____(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 11) 김영만 역(1989). 엘리노어 보이킨(Boykin, E)저. *에티켓 사전(This way please)*. 서울: 을유문화사.
 - 12) 김윤환(1993). 기본생활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김은주(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정신 · 노은호(1996). 초등학교 어린이의 예절 교육.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235-260.
 - 15) 김희경(1999).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김희화 · 김경연(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차이와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7(5), 1-18.
 - 17) 도수경(1990). 가출경험 소녀와 비 가출 경험 소녀간의 가족관계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문화시민운동협의회(1998). *멋진 시민, 품위 있는 한국인*.
 - 19)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6.
 - 20) 박경숙 · 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65-80.
 - 21)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백지숙(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28-138.
 - 23) 송대현 · 박한기(1992). 한국노인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79-96.
 - 24) 안선영(1994). 가족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 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80-91.
 - 25)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6) 유안진 · 김혜선(1996). *인간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27) 이강윤(1986). 도시 중년기 주부의 자아존중감 및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이길표(1997). 규범서롤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35-146.
 - 29)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 · 가정관리전략 · 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이신숙 · 조윤희(1997). 성, 연령,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61- 172.
 - 31) 이정우 외 (2000). *생활문화와 예절*,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32) 이정우 외(2001).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서울: 양서원.
 - 33) 이정우 · 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수행*. *숙명여대 건강생활연구* 12, 39-56.
 - 34) _____(1999).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1), 119-132.

- 35) 이정우 · 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교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4, 1-16.
- 36) 이정우 · 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교육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숙대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 생활과학연구지. 창학 90주년 특집호, 3-24.
- 37) _____(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 · 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61-173.
- 38) _____(1999).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 · 제례의식 · 제례수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33-50.
- 39) _____(2000). 사회적 기여를 위한 생활예절교육의 현황 및 확산 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6-33.
- 40) 이정우 ·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 · 적응력 및 가사노동 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 41) 임수미(199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응집성, 적응성 및 체계유형과 가족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 박사학위논문.
- 43) 장경선(1992).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실태에 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5) 전귀연 · 최보가(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Ⅰ).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46)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47) 정경순(1995). 청소년의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8) 임혜경 · 정지영(1997).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 1-22.
- 49) 정지영 · 주영애 · 안현숙(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307-350.
- 50) 조선일보사(1999), 글로벌 에티켓.
- 51) 지금수 · 김정애(1992).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가정교육학회지 제2권.
- 52)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의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53)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54)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 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5.
- 55) 홍정기(1995). 국민학생의 상황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6) 황인명(1980). 고등학교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7) Kantor, D. & Lehr, W.(1976).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Jossey-Bass.
- 58) Olson, D. H. & Portner, J.(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 59) Olson, D. H. & Portner, J., Lavee.(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60) Olson, D. H., McCubbin, H. I., Bames, H. L., Larsen, A.S., Muxen, M. J. & Wilson, M.A. (1983). Families; what makes a family, Beverly Hills; sage pub.
- 61)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el,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 62) Post, P.(1997). Emily Post's Etiquette (16th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 63)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 Y.: Basic Books, Inc.